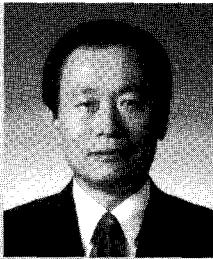


## 고품질 제품 생산, 연포장 산업 선도

### 내실 경영 통해 IMFT 발전 거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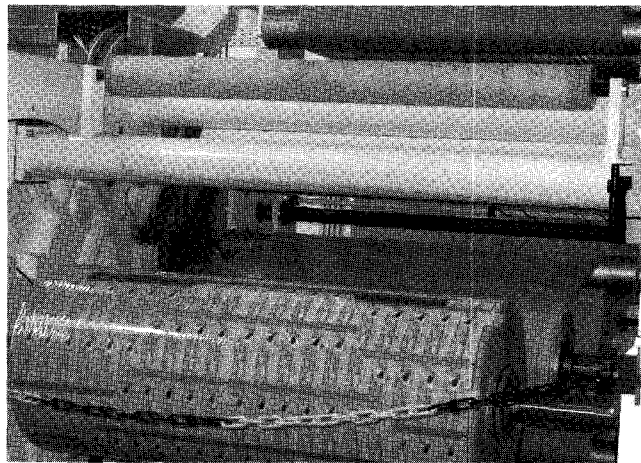


박 현 기  
(주)동서 대표이사

지난 1975년 창업 이래 세라믹 제품과 포장제품 제조업을 기반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부품사업, 음료·식자재 유통업, 해외영업, 구매대행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온 (주)동서(대표이사 박현기).

1995년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면서 (주)동서는 외적성장보다는 수익성을 위주로 내실경영을 추구, 현재 기획관리부문, 식품연구소, 식품사업부문, 물자사업부문, 포장사업부문의 5개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신설된 다류사업팀은 향후 차 관련 협회 가입 및 일본, 중국 등의 현지 교육을 통해 다류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차 사업이 (주)동서를 주도해 나갈 핵심 사업의 하나가 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식품사업부문과 함께 (주)동서의 핵심사업부문으로 자리잡고 있는 포장사업부.



▲ (주)동서 라미네이터기



▲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 위치한 (주)동서 포장사업부

“포장은 곧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 포장산업의 중요성을 창립초기부터 고려, 현재 연포장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주)동서 포장사업부를 찾았다.

1981년 식품포장용 플라스틱 사출캡과 식품포장용 지관 용기를 생산, 판매하면서 유동기업 포장사업부(현재의 (주)동서)는 탄생된다. 1989년 현재의 반월공단내 포장재 생산 공장 완공 이전하면서 연포장 제품의 생산, 판매에 박차를 가하게 된 유동기업(주)은 연포장제품 생산을 위한 그라비아 인쇄기, 라미네이션기, 슬리터기 등을 설치 완료하고 연구개발팀을 발족하면서 영업

을 개시하게 된다. 이후 상향 공냉식 및 하향 수냉식 Blown Film을 생산, 1996년 현재의 (주)동서 포장사업부로 사명을 변경, 발전해 왔다.

(주)동서 포장사업팀의 20여년의 역사의 중심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정일 전무이사. 그는 1970년대 KIDP(현재의 한국디자인진흥원)과 1980년대 동양제과 포장사업팀에서의 포장에 대한 노하우를 토대로 (주)동서 포장사업부 탄생의 초기부터 포장사업부문을 책임지고 이끌어 왔다.

그는 “지난 94년 지관사업 시설매각된 이후, 연포장의 성장에 따라 2000년 병포장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플라스틱

사출캡 생산마저 정리해야 했다”면서 “포장사업팀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두 제품 생산이 중단된 것이 사뭇 아쉽다”고 밝혔다.

현재 (주)동서 포장사업부는 식품포장에서 산업포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포장재를 생산, 고객만족을 이끌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습기, 가스 차단성 및 기공성이 뛰어나고 제품보호성이 우수한 연포장재와 인쇄물, 알루미늄 박 기타이 급지(CPP) 등과 접합, 가공된 포장재는 각종 식품 특히 커피, 크림, 각종 양념류, 레토르트 제품 등의 포장 뿐만 아니라 약품, 화학제품, 전자제품

## Dong Suh

및 산업용 포장재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2개 이상의 다른 압출기에서 용융시킨 서로 다른 수지(원료)를 한 개의 다이(DIE)내에서 적층(LAMINATION)시켜 여러겹의 원하는 필름이나 시트를 만드는 공압출필름의 경우 층수가 많을 수록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유리하다.

(주)동서의 공압출필름은 5층 공압출 공정에 의해 생산,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용제 등을 사용

하지 않기 때문에 타공정(T-DIE, DRY LAMINATION)에서 접착제 사용으로 생길 수 있는 잔류용제로 인한 클레임 소지가 없다.

우수한 품질과 높은 생산성으로 식품포장에 앞장서 온 (주)동서 포장사업부.

현재 그라비아 인쇄기, Dry Laminator, 공압출 작업이 가능한 Tandem Coextrusion Laminator 등 첨단설비와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연 포장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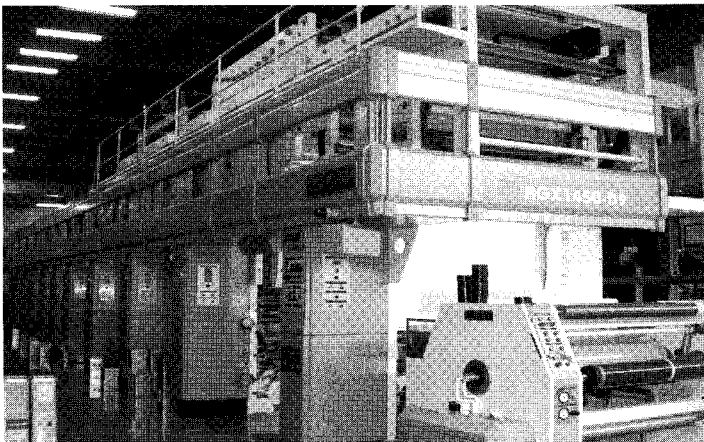
(주)동서 포장사업팀의 주력 제품이라 하면 단연 커피 포장 일터.

‘커피’ 제품 특성상 (주)동서는 커피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기 및 습기 투과를 방지해 장기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97년 찾아온 IMF 외환 위기는 국가 경제의 침체를 야기시켰고,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인력감소를 가져왔다. 냉수기의 유행으로 보급이 확산되자 각 기업에 있어서,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티타임(Tea time)을 갖는 것이 개인의 몫으로 남겨지게 된다.

당시 상황에서 (주)동서 커피믹스는 급속도로 수요가 증가, 스틱형 커피믹스 포장은 설량량이 조절 가능하고 변함없는 맛의 장점으로 불황속에서도 매출신장을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연포장사업을 개시하면서 (주)동서 포장사업부 발전은



▲ (주)동서의 그라비아 인쇄기



▲ (주)동서 공장 전경

이끌어 온 포장기술연구소는 저온셀링제품, 고투명성제품, 레토르트 살균가능한 제품, 높은 차단성 제품(산소차단성 및 습기차단성), 성형용필름, 내 γ-ray포장재 등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기술창출을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특히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Easy Peel필름의 국산 대체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 연구개발비에만 10억원을 투자, 무용제 라미네이트 가공 시험, 커피믹스 포장재 원가 절감 시험, 85% CDF 표면재질 시험, 알루미늄 원재료 국산화 적용 시험, 국산 차 포장재 품질 개선 시험, 밥 포장재 개발, 스틱(STICK) 포장재 원가절감 시험 등으로 적

용 가능성을 재차 확인하며 품질개선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커피믹스 외포장재에 손잡이 부위를 삽입함으로써 기능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파단강도를 개선할 수 있는 커피믹스 외포장재를 개발, 제품에 적용중이다.

탄생 초기 30여명으로 출발했던 (주)동서 포장사업부는 이정일 전무이사의 지휘 아래 현재 100여명의 근로자가 매년 15% 이상의 매출성장을 이루며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고품질의 제품 생산”과 “철저한 납기일 준수”가 경쟁력이라고 밝히는 이정일 전무이사는 지난 해 12월부터 3교대로 현

장을 운영하는 등 높은 생산성과 위생성 향상을 통해 포장 선진화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일 전무이사는 “일본의 경우 제품개발자가 있는 곳에는 포장기술자가 함께 있다”며 국내의 경우 식품회사들이 포장을 부재료로 인식하는 등 포장이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제품연구와 포장연구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

덧붙여 그는 “포장산업에 대한 3D업종 인식이 현장인력의 부족함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포장인력양성사업이 이론적인 인력양성보다 실질적 인력양성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국내 경제를 위기로 몰고갔던 IMF 위기속에서도 내실 위주의 경영으로 발전해 온 (주)동서 포장사업부는 올해 6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포장재와 필름 생산, 우수한 품질과 생산성으로 국내 연포장 산업을 선도해 온 (주)동서 포장사업팀의 끊임없는 포장경쟁력을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